

# “호남 상생 논의, 전북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 송하진 전북도지사

### 호남, 상생이 미래다

민선 6기  
광주일보의 제안

부드러운 미소로 반겼지만 섬섬한 심경은 감추지 않았다. 지난 15일 오후 전북도청 도지사실에서 만난 송하진(62) 전북도지사는 호남에서의 ‘전북 소외’를 강조하며, 호남 상생을 위해서는 ‘심리적 간극’을 메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호남이라는 대의명분 속에 광주·전남이 그에 따른 수혜를 독식하면서 전북의 상실감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단기간 고밀도 외형적인 상생 모델을 그리기 보다는 광주·전남과 전북이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자구노력을 한 뒤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찾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송 지사는 “전국적으로는 호남 소외, 호

남 소외”고 토로했다.

송 지사는 이러한 이유로 중앙에 호남의 힘을 보여줄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론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 윤장현 광주시장이나 이낙연 전남지사와의 언제든 만날 수 있으며, 이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송 지사는 ‘전주 토박이’로 전주고를 나와 행정고시 24회에 합격, 1980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전북도에서 20년, 안전행정부 등에서 5년 등 25년간 공직에 몸담은 뒤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역임했다. 행정학 박사로, 전주시장 재임시절 경기전과 전통성당 인근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전주 한옥마을’을 조성, 연간 500만 명 이상의 외지인이 찾는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전국적인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전북도지사로서 광주일보와 첫 인터뷰



**송하진 지사 프로필** ▲고려대 법학과 졸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단장 ▲고려대 행정학 박사 ▲민선 4·5기 전주시장

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공항, 프로젝트 등 기반시설이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크다.

▲전북과 광주·전남 3개 시·도는 같은 문화권 같은 정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1년 당시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 반대 취지의 공동건의문을 채택

했고, 2013년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광주 군 공항 이전지로 군산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전북이 벌이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번번이 제동을 거는 쪽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광주·전남이었다. 이는 전북과 광주·전남을 하나로 묶는 호남이라는 정서적·문화적 동질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6·4 지방선거에서 3개 시·

도 모두 새 단체장이 들어선 만큼 조만간 만나 상생발전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호남에서의 전북 소외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말 현재 호남지역 공공·행정기관 지역별 분포를 보면 31곳 중 전북은 4곳에 불과하다. 전북은 수도권 편중이 이어 호남 내에서는 광주·전남 편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호남권 소외 속에 ‘밥그릇’ 자체가 영남이나 충청보다 작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전북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컸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업무성격, 지역적 특성, 인구비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치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갔으면 한다.

—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했다.

▲도시의 성장과 사람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여기서 사람은 관광객과 인재를 의미한다. 전북이 가진 전통문화의 원형과 자연생태자원 그리고 농경문화를 결합해 1억명 관광시대를 열겠다.

또 탄소산업, 관광서비스, 농생명산업,

집중 육성하겠다.

— 호남 상생에 대해 조언한다면.

▲호남권 상생의 기본원칙은 상호존중이다. 호남권 3개 시·도가 국책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과 관광상품 개발 등 상생협력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추진력과 상생의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

— 새만금 사업과 공항 문제에 대해 궁금하다.

▲새만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사업이다. 대통령이 공약을 발표하고 추진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 전북은 보조 및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북이 지나치게 자체사업인 것 마냥 홍보하고 미래를 부풀려 이야기한 측면이 있다.

향후 민선 6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지양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발적 발전을 위한 역할을 결합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전북권 공항건설 문제는 김제공항 추진 이후 지지부진하면서 대안으로 추진하던 군산공항마저 미군과의 협의 문제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신공항은 새만금 내부 개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최대의

## 과거 단체장들 성과 중시...‘전북소외’ 초래 광주·전남 양보·배려만이 상생 밑거름 될 것

## 공항 등 대규모 기반시설·사업 둘러싼 이전 상생엔 공감하지만 방법론은 별도 논의 필요

남 안에서는 전북 소외가 상당기간 지속됐다”며 “과거 정권 차원에서 분리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후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체장들이 성과를 우선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과 전북과의 불균형에 대한 광주·전남의 양보와 배려가 상생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전북의 ‘독자 노선’ 색채는 진해졌다. 일각에서는 전북이 정치·경제·행정 등 각 분야에서 호남의 품을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새만금사업, 국제공항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나 기반시설을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다.

그는 “공공기관, 공기업, 금융사, 민간기업의 호남본부 대부분은 광주에 있다”며 “지금까지 광주·전남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을 때 전북이 반대한 적은 없지만, 역으로 광주·전남은 전북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되면 반대하고

부인했다.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쥐 감상하다. 호남 상생을 논의하는데 있어 전북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려는 시도도 반갑다.

— 호남 소외, 호남 위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호남권은 전북도 189만6045명, 광주시 148만849명, 전남도 193만1757명 등 모두 531만6298명인데 반해 충청권 4개 시·도 인구는 537만84명에 달한다.

또 호남의 젊은층과 고급인력이 대학 진학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충청권 등지로 빠져나가면서 호남권 3개 시·도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2030세대의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한편,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과 기업유치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호남권 시·도 간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발

## 전통문화 활성화 ‘1억명 관광전북시대’ 생태환경·농촌관광·탄소산업 집중 육성

## 지지부진 새만금 사업·국제공항 건설 문제 주민 의사·항공수요 등 잘 파악해 추진할 것

금융산업 등 신성장동력창출과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질 높은 인재를 모으려는 전북을 만들겠다. 또 기업과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내발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겠다.

— 내발적 발전은 무엇인가.

▲그동안 전북은 내부 문제 즉, 상대적 낙후, 압축성장에 의한 사회적 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문제의 해결을 외부에 의지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외부에 의존하는 외생적 발전 전략만으로는 경제 환경과 자본의 속성상 온전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내발적 발전이라는 것은 내부에 있는 장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태환경과 전통문화 그리고 자랑스런 역사, 서로 돕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 등의 장점을 통해 농업, 관광, 탄소산업을

현안 중 하나이지만 어느 부지가 적합한지는 잘 따져 봐야한다.

일단 헌신을 받고 있는 국제공항을 반드시 국가사업에 반영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주민들 의사와 항공수요 등의 여건을 잘 파악해 추진하겠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영남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었던 호남이 이제는 그 역할을 충청권에 넘길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현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국가예산마저 정치적 이해 관계로 배분한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데 인구 감소로 인한 선거구 재획정 논의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웃이 잘 돼야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으로 호남권이 국가의 중심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북과 광주·전남이 힘을 모아갈 수 있기를 호소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동강대학교

#### 총동창회 창립 총회 개최

6만 동문 여러분을 동강대학교 (구, 동신전문대학) 총동창회 창립총회에 다음과 같이 초대합니다.

다음


1.일 시 : 2014년 7월 25일(금) 저녁7시  
2.장 소 : 신양파크호텔 대연회장  
3.안 건

가. 총동창회 회칙 제정  
나. 총동창회 회장 및 임원구성

\* 문의전화 : 062)520-220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dkc.ac.kr (학교소식란)

2014년 7월 21일

동강대학교 총동창회 창립추진위원장  
허두현



### 전통 주역사주

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 인간도 예외 일수는 없다.

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주역의 종합본

저자 서상덕 (전 교육연구관) 석사

- 1.필사본
- 2.정가 : 32,000원(택배비 포함)
- 3.구입문의: 010-4211-2146  
정확한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시
- 4.불법 복제를 금함



##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직용범위 :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성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판넬 벽체 및 지붕  
기와의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